

201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3	2	4	3	2	4	2	5	5
6	2	7	3	8	3	9	1	10	5
11	4	12	4	13	4	14	2	15	2
16	4	17	1	18	1	19	5	20	5

1.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존재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에 빠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삼독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2. [출제의도] 왕양명의 사상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왕양명이다. 왕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고 마음 밖의 이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발휘할 것[致良知]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히 한 후 행동하는 주자의 선지후행(先知後行)을 비판하며 앎과 행동이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였다.

3.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글이다.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이나 이성 통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못한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또한 덕은 참된 앎이기에 영혼의 수련을 통해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꿀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나딩스의 배려 윤리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시하는 정의 윤리를 비판하며 구체적 상황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또한 배려의 근원에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가 있으며, 도덕적 실천은 인간관계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야스퍼스와 사르트르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야스퍼스, 혹은 사르트르이다. 야스퍼스는 현재 상황을 제시하며, 이를 직시함으로써 실존을 깨닫고 신에 대한 참된 경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실존적 존재라고 보았다. 한편 야스퍼스와 사르트르 모두 이성의 합리성이나 객관적이며 논리적 사고로 파악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혹은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ataraxia]를 추구하는 소극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스토아 학파의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logos]

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두 사상가는 모두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동학과 원불교 비교하기

같은 동학의 최시형, 혹은 원불교의 박종빈이다. 최시형은 현재에서의 지상 낙원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반면 박종빈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靈肉雙全], 현실과 이상의 조화[理事並行]를 추구하였다. 한편 두 사상가 모두 종교적 수행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8. [출제의도] 공자와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공자, 혹은 맹자이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통치자가 먼저 인격을 닦아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통치[德治]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의 정명(正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교체해야 한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왕치의 정의관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왕치이며, (나)의 괴물 속 가로 낱말 (A)는 '정명(正名)'이며, (B)는 '자본주의(資本主義)' 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정의(正義)'이다. 왕치는 사회적 가치들을 각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 기준과 분배 원칙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영역의 가치도 다른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받 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혹은 칸트이다. 벤담은 행위의 결과를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가)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비판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드러나고 사단은 칠정 속의 선한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는 사단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12.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하며 이성에 의해 이데아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였고 최상의 좋음은 행복이라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하였으며, 덕을 갖추려면 좋은 행동을 습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플라톤과 달리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대동 사회와 공산 사회 이해하기

(가)는 유가의 대동 사회, (나)는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이다. 대동 사회는 도덕성이 구현되며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공산 사회는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이다. 한편 대동 사회와 공산 사회는 모두 재화의 고른 분배를 지향한다.

14. [출제의도] 흠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흠의 사상은 흠이다. 흠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며,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 공감하여 실천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순자의 글이다.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며 성인(聖人)이 만든 예의와 법도를 배워 인위적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化性起僞]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밖에서 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였고 플라톤의 철학을 근거로 천상의 국가는 완전하고 참된 세계이며 지상의 국가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하였다. 또한 신을 종교적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반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여 철학과 신학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의 삶의 목적을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였다.

17.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은 태어났면서 공동체와 집단에 소속되며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삶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글이다. 장자는 유가의 인의(仁義)나 예악(禮樂)과 같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嗜好)로 파악하고 인간에게 선과 악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自主之權]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리학의 '성즉리(性即理)'를 비판하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비교하기

(가)는 민본주의, (나)는 민주주의이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보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인격적 완성을 중시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고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